

대강절 두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OF ADVENT

주후 2023년 12월 1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단” (통일 10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16번 구주 강림 (2)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장 “세번 아멘”(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Romans) 12:1-11	조문희 집사
찬 양 Anthem	“찾아오신 예수”	찬양대
설 교 Sermon	“생각하라” (Think)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Song	“나의 기도하는 것 보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ng Hymn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통일 36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지만,

우리는 쉽게 기쁨과 감사를 빼앗겼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휩싸였으며,

자주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죄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기력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상실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긍휼을 구하오니,

다시금 우리 안에 참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전 5:16-1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개역개정 롬 12:3)

“For by the grace given me I say to every one of you: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but rather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 of faith God has given you.” (NIV Romans 12: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10 (주일)	12/11 (월)	12/12 (화)	12/13 (수)	12/14 (목)	12/15 (금)	12/16 (토)
	대하10	대하11,12	대하13	대하14,15	대하16	대하17	대하18
본문	계1 습2 눅24	계2 습3 요1	계3 학1 요2	계4 학2 요3	계5 숙1 요4	계6 숙2 요5	계7 숙3 요6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2/13수 오후7:30)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벧전4:6)
토요 새벽기도회 (12/16토 오전6:30)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사119:169-176)

지난 주일(12/3) 말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롬 11:1-12)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남은 자(Remnant)”에 관한 이야기로 넘쳐 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가리켜, “Remnant Theology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롬 11:5)고 말씀했습니다. 즉, 엘리야 전지자가 “주여, 그들이 주의 전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롬 11:5)라며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칠천 명”(롬 11:4)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Remnant)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1)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롬 11:1-2 상)는 사실이고, 2)둘째는, 우리가 쉽게 속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롬 11:3)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속단을 내리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처럼 교만해 지거나, 우리의 속단과 판단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3)마지막으로, 우리는 Leftover가 아닌, Remnant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롬 11:5, 7) 이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남은 자”란? “Remnant”이지, (결코) “Leftover”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칠천 명”이 남겨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진정한 남은 자(True Remnant)”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